

[발표 2]

간접적·우회적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는 부부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 원가족 경험을 중심으로 -

박태영(송실대)
신건철(송실대 박사과정)

I. 서론

본 연구는 부부가 각자의 원가족과 밀착되어 있어 미분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룬 가족에 대한 정체감 형성의 지연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 등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되어 가족의 기능성 약화 및 부부간, 자녀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에 이혼을 고려하는 사례를 다룬 것이다.

Bowen(1978)에 의하면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은 결코 정서적인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며, 부모와 정서적인 단절을 한 젊은 성인들은 반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정서적으로 얽매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내담자인 부부는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로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어머니로부터 분화되지 못하고 증상(병)을 통해 아들을 조정하려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이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의 갈등적 애증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아내역시 시댁(시아머니, 시누이)과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상담을 배우고 있으며 남편과 같이 4년간 정신과 및 사설상담실에서 개별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현재 부부는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해서 체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내담자인 원가족 및 부부가 사용하는 간접적·우회적인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가족성원에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기여하였는가와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성원 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이 내담자(부부)의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위의 연구문제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가족상담 축어록을 중심으로 내담자의 간접적·우회적 의사소통방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 중 특히 원가족에서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과 가족 내에서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살펴본다. 한편, 가족치료로 인하여 내담자의 가족성원들 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을 찾기 위하여 질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 중 연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단일사례연구의 방식을 사용하며, 상담축어록과 상담 시에 기록된 메모,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문헌들을 활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통해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질적자료분석프로그램인 Atlas.ti 5.0을 사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자료의 연구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중 Miles와

Huberman이 제안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담 전과 상담 후의 내담자의 증상과 증상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관련 상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원가족의 경험

Gavin & Wamboldt(1992)은 원가족(Family of Origin)에서의 관계가 현재의 가족속에 재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으며 성인자녀가 원가족에 대한 충성심에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으면 자신이 이룬 가족에 대한 정체감 형성이 지연되거나 약화되어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되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부모의 결혼생활을 관찰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된다(Stinnett, Walters & Kaye, 1984).

부부관계의 상호적응과 일상적 의미의 발달은 개인이 가진 물리적, 사회적, 개인적 여과장치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각 배우자들의 원가족의 배경 역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라온 것과는 다른 가정생활을 바라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원가족의 것과 비슷한 가정생활을 재창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이재연, 1993).

2. 치료에 대한 이론적 근거들

1)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

본 사례에서는 원가족과 정서적 미분화로 인하여 부정적 가족투사 및 각자의 원가족내에서의 경험으로 인하여 결혼 후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를 원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가정내에서의 과도한 아내의 역할부담을 줄이는 것을 통해 부부간 밀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아분화를 시도하였다.

2) MRI(Mental Research Institute)의 의사소통이론

본 사례는 원가족에서 경험하고 사용하였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을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였던 즉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인 You- message의 의사소통방식을 타협이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인 I-message로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가족관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질문

첫째, 원가족 및 부부가 사용하는 간접적·우회적인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가족성원에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기여하였는가?

둘째, 가족치료를 통하여 가족성원 간의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이 내담자(부부)의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2. 연구대상 및 상담기간

상담이 의뢰된 당시 남편은 (46세)과 아내(34세) 모두 무직으로 야간에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경제력이 없는 관계로 시어머니로부터 경제적인 분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개입에 대하여 아내에게 가정내 과도한 역할의 부담이 부여되고 있었다. 상담기간은 2000년 8월 11일부터 2001년 1월 17일까지 총 11회의 개별상담과 부부상담이 병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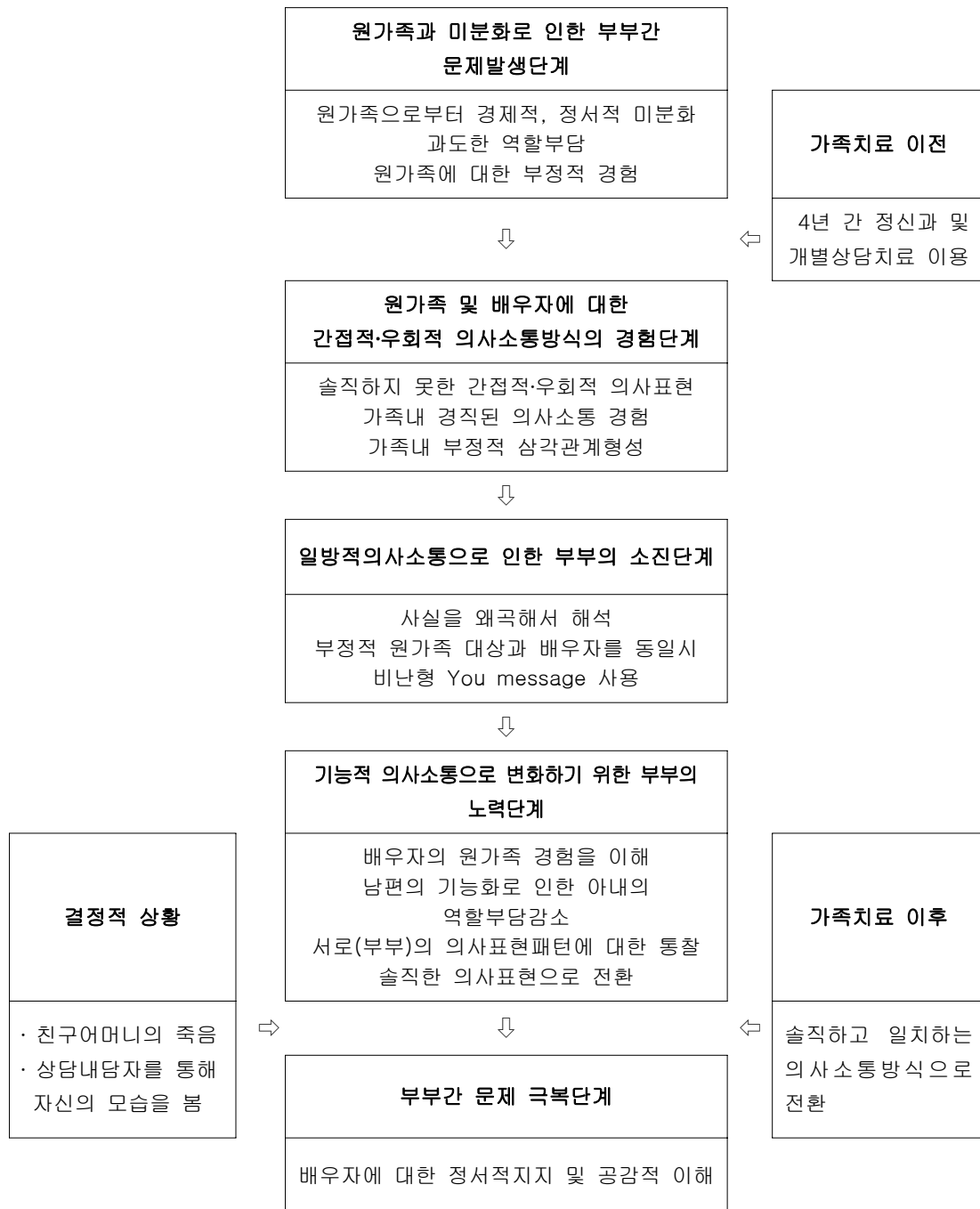
3.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 개입방법의 효과를 규명(Polstol & Lynch, 1981:373)하는 질적연구방법인 단일사례 연구 방법(single case study design)을 사용하여 11회에 걸친 상담축어록과 상담 시에 기록된 메모, 그리고 원가족내 경험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헌들을 활용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질적자료분석프로그램인 Atlas.ti 5.0을 사용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에서 나타난 개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질적자료의 연구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중 Miles와 Huberman이 제안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담 전과 상담 후의 내담자의 증상과 증상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관련 상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V. 상담내용 분석

1. 과정분석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과 미분화된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인 간접적·우회적 표현방식으로 인해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갈등관계를 겪고 있는 부부의 문제가 가족치료를 통해 변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각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간접적·우회적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는 부부에 대한 가족치료에 따른 변화과정 분석

2. 근거자료의 범주화

간접적·우회적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는 부부에 대한 가족치료과정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는 <표 1>과 같다.

<표 1 가족치료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원가족과 미분화로 인한 부부간 문제발생단계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미분화	어머니의 지나친 개입, 경제력으로 아들을 통제, 어머니에 대한 분노, 어머니의 정서적 미분화, 증상으로 자식을 통제, 경제적 미분화로 인한 어려움, 어머니와 밀착관계, 친정아버지와 밀착형성,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 부부갈등에 어머니를 개입, 시어머니와 아내간 갈등, 어머니와 동맹관계형성, 아들의 부적행동을 목인
	가족내 과도한 역할부담	아내에게 과도한 역할부여, 무기력한 원가족내 형제, 남편으로 인한 고부간 갈등, 가장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편, 갈등으로 인한 신체화증상, 흩어진 형제간 위계질서, 원가족내 과도한 역할부담
	원가족에 대한 부정적 경험	집안내 아버지권위 무시, 어머니의 가장역할, 어머니와 소원한 관계,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불신, 부부간 다른 원가족경험, 무능력하게 키워진 성장과정,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부모원망,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 원가족으로부터 무시의 경험, 무시에 대한 부적감정, 원가족경험에 부정적반응, 원가족으로부터 소진, 과거 부정적기억의 연상
원가족 및 배우자에 대한 간접적·우회적 의사소통방식의 경험단계	솔직하지 못한 간접적·우회적 의사표현	우회적인 분노표출, 과거회귀적 분노표출, 부부간역기능적의사소통, 원가족내에서의 역기능적 의사표현방식, 자식을 조정하기 위한 우회적 표현, 솔직하지 않은 표현방식, 맞추어주기만 하는 방식, 부정적 결과에 대한 방어적 귀인, 부정적감정의 전이, 투사적표현방식, 과거 회귀적감정표현, 생략된 언어표현
	가족내 경직된 의사소통 방식	원가족내 단절된 의사소통 경험, 원가족내 삼각관계, 갈등적 형제체계, 원가족내 부모간갈등, 가족내 대화상대의 부재, 일방적의사소통방식, 비난형 You Message사용, 경직된 원가족내 의사소통방식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인한 부부의 소진단계	사실의 왜곡된 인식	사실을 왜곡해서 인지, 부정적 원가족 대상과 배우자를 동일시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의사소통방식	남편의 지속적 분노, 표면적이고 일방적인 대화, 상승적 부적표현방식, 자기중심적사고, 부부간 대칭적 관계, 책임회피적 표현방식, 불안정한 감정표현,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변화하기 위한 가족의 노력단계	배우자의 원가족 경험을 이해	남편에 대한 이해, 부부간 공통점인식, 배우자의 원가족경험을 이해
	부부간 역할 기능의 확대로 인한 갈등감소	경제적분화시도, 원가족으로부터 분화하기 위한 노력, 관계개선을 위한 부부의 노력, 대화방식변화로 인한 싸움감소, 남편의 기능화로 인한 아내의 역할부담감소
	서로(부부)의 의사표현패턴에 대한 통찰	자신에 대한 통찰, 배우자의 대화패턴에 대한 이해
부부간 문제 극복단계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지지 및 공감적 이해	솔직한 의사표현으로 전환
		양적대화에서 질적대화로 전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긍정적 대화로 전환, 직접적표현으로 전환, 부부간감정표현의 확대
부부간 문제 극복단계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지지 및 공감적 이해	아내의 힘이 되어줌, 배우자로부터 배려받았다고 느낌, 부부간 공감적 대화

다음은 81개의 개방코딩을 중심으로 한 축코딩에서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미분화', '가족내 과도한 역할부담', '원가족에 대한 부정적 경험', '솔직하지 못한 간접적·우회적 의사표현', '가족내 경직된 의사소통 경험', '사실의 왜곡된 인식',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의사소통방식', '배우자의 원가족 경험을 이해', '부부간 역할기능의 확대로 인한 갈등감소', '서로(부부)의 의사표현패턴에 대한 통찰', '솔직한 의사표현으로 전환',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지지 및 공감적 이해'을 발견하였다.

아래 표는 각각의 축코딩에 따른 개방코딩의 내용들이며 하위범주 ()에 있는 숫자는 축코딩에 포함된 개방코딩의 수를 의미하고 1:64(585:585)에서 1은 첫 번째 자료를 의미하고, 64는 총 104개의 개방코딩 중 64번째 코딩을 의미한다. 또한 585과 585은 Atlas.ti의 원문에서의 585번째 단락과 585번째 단락에 있는 축어문의 자료를 의미한다.

(1) 간접적·우회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미친 요인들에 관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른 분석

① 원가족 및 배우자에 대한 간접적·우회적 의사소통방식의 경험단계<범주>

하위범주	개념	인용문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미분화 (14)	어머니의 지나친 개입	남편: 어머니가 하두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저는 제발 좀 놔두라고 그랬어요. 하도 울고, 불고 난리를 쳐서 어머니가 개입하는 것 나는 싫다고 이야기 했어요.1:1(51:51)
	경제력으로 아들을 통제	남편: 저희 어머니는 저도 불러내고, 아내를 불러내기도 해요. 뭔가 돈으로 힘을 과시하시려고 하세요.1:2(56:56)
	어머니에 대한 분노	남편: 내가 거기서 다 둘러엮고 꽤 죽이고 싶더라구요. 당신이 돈있다고 왜 장난치냐..1:3:(63:63)
	어머니와 갈등	남편: 그게 저희 어머니의 방법이더군요. 악착같이 “give up”을 받아내세요. 저는 “give up”을 안하려고 하고요.1:4(63:63)
	어머니와 정서적 미분화	남편: 계속 머리 굴리시면서 상황보고, 저희가 불안해하면 한번 질러봐요. 1:15(142:142) 남편 : 돈가지고 그러시기도 하고, 불안하면 확인해보고.1:15(144:144)
	증상으로 자식을 통제	아내: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 기도제목으로 기도했을때 좋으면 진저리가 나고, 아니면 하품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품이 나는 일은 다 못하게 하고, 다른 형제들도 엄마가 하품난다고 하면 안해요 어머니 속상하게 하면 아프다고 드러누워 계시고, 자식들 비상령 내려서 다 벌어야 되고 눈치봐야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요.1:16(146:146)
	경제적 미분화로 인한 어려움	아내: 자립을 하려는데 나이도 있고, 하는중이긴 한데 힘들죠. 1:18(158:158)
	어머니와 밀착관계	남편: 저한테도 엄마가 힘이 됐기 때문에 엄마의 힘도 제가 밀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형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제가 어머니 밀어줬거든요. 지금도 제가 어머니 장단점 잘 알기 때문에 돈거래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엄마도 제 장단점을 잘 알고.1:19(163:163)
	친정아버지와 밀착관계	아내: 아빠는 제가 막 노력을 해서 아빠를 재미있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귀여움 받으려고. 아빠가 저를 굉장히 이뻐하셨고..동생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1:30(241:241)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	아내: 아버지를 원망하라고 하면 조금 나오지, 너무나 내가 약하고 힘들때 도

		<p>와줬다는 것이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편같이 철저하게 미워하지 못해요. 1:34(262:262)</p> <p>아내: 신랑이 엄마랑 형있다고 하니까 꼴도 보기 싫어서 같이 오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동석하는 기회도 싫어하고, 다음주 어머니님 생신인데 그것 때문에 갈까, 잘 안가요. 옛날에는 싫다 싫다 하면서도 가서 한참 있다 오고 주기적으로. 저는 그것을 아는데 본인은 인정을 안해요. 1:34(322:322)</p>
	부부갈등에 어머니를 개입	<p>아내: 어디로 피해야겠다 했는데, 대책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그만 살자는 것에 서로 동의한 듯이 이야기가 되어서, 제가 어머니께 가자고 했어요. 1:71(640:640)</p>
	시아머니와 아내간 갈등	<p>아내: 내가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는 힘들지 하는 말뿐이지, 정말로 배려해주는 게 없어요. 이제는 이 분노나 모습을 보여주고,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내 분노가 올라오는거예요. 1:72(642:642)</p>
	어머니와 동맹관계형성	<p>아내: 내가 너무 답답해서 당신도 이야기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서야 남편 말이, 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처갓집 망했을때 돈 끌어대느라 힘들었다 그러는데, 저의 치욕을 어머니 앞에서 더 내놓는 거죠. 1:73(646:646)</p>
	아들의 부적행동을 목인	<p>아내: 제가 그때 화난 것은 저만 붙들고 이야기하지, 아들을 야단을 안치는 거예요. 제 핵심은 당신이 이렇게 키워서 지금 이런거니까 현실을 보고 정말 최소한 어머니가 너 이러면 안된다고 남편을 자제를 시키고 그럴 줄 알았어요. 1:74(646:64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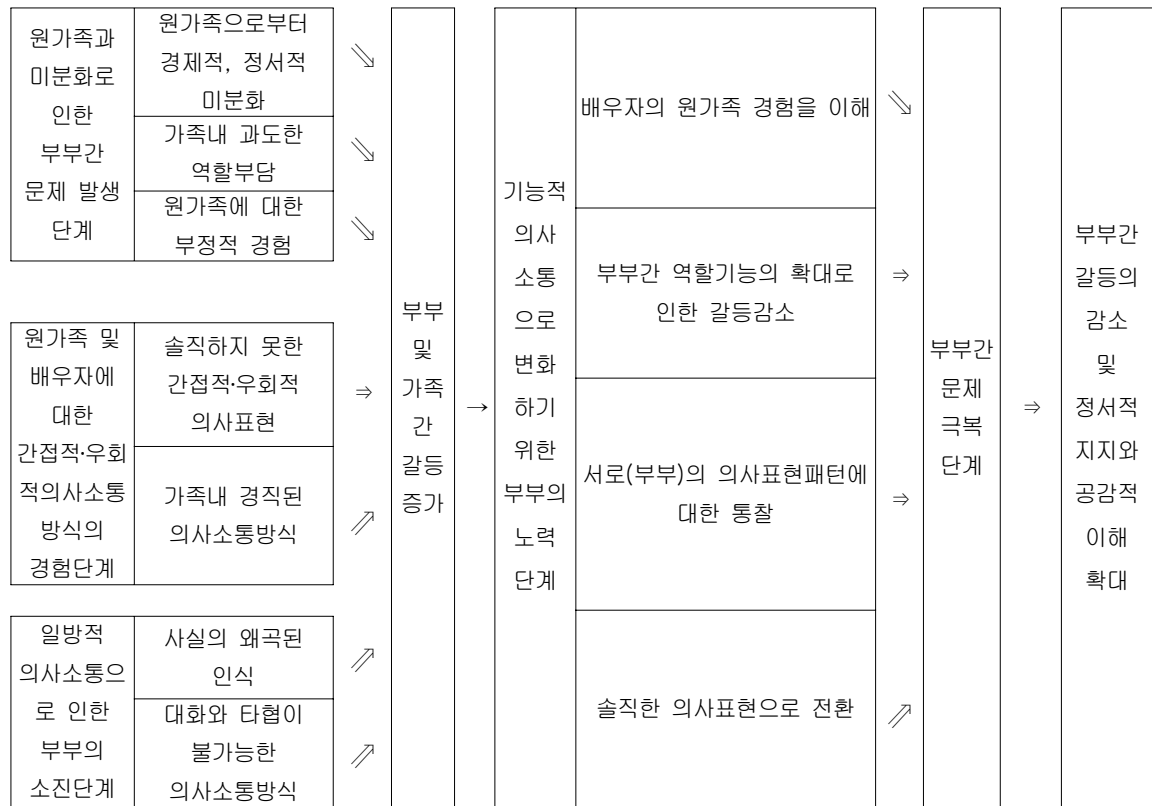
(2) 가족치료를 통해 간접적·우회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

①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변화하기 위한 가족의 노력단계

하위범주	개념	인용문
배우자의 원가족 경험을 이해 (3)	남편에 대한 이해	<p>아내: 그 감정 때문에 남편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지독하게 하는 것이 이해되요. 1:37(270:270)</p>
	부부간 공통점인식	<p>아내 : 둘이 닮은 것이 제가 아버지하고 제일 친했고, 신랑이 어머니하고 제일 친했어.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면서도 이혼안하고 버티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혼안하신 것도 있고. 1:38(302:302)</p>
	배우자의 원가족경험이해	<p>남편: 제가 짐사람한테도, 저희집 방식대로 된다, 안된다 짜르고, 해봐야 별것 없으니까 너나 하든지 식으로 방치하고 무시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힘들다 그랬을때 그때 그때 자기 감정을 받아줘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너무 틀리게 살았구나, 1:90((888:888)</p>
부부간 역할기능의 확대로 인한 갈등감소 (5)	경제적분화시도	<p>남편 : 어머니하고 밀착관계가 이제 비전이 없드라구요. 제 삶에. 어머니하고 돈관계를 끊었어요. 1:44(397:397)</p>
	원가족으로부터 분화하기 위한 노력	<p>남편: 그런 부분은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하고 분리작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 모습보고 정리되고.. 1:75(654:654)</p> <p>남편: 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지 애쓰고 있다고요. 그것이 얼마큼 됐는지는... 1:75(658:658)</p>
	관계개선을 위한 부부의 노력	<p>아내 :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하는 중이긴 했는데, 교육을 받았어요. 성폭력가해자심리상담과정중에 부부대화하는 법에 대해서였는데, 같이 받았어</p>

		<p>요. 1:82(818:818)</p> <p>남편: 훈련도 많이 받고, 우리가 무엇이 잘되고 안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지적해 주고, 받아들이고.. 1:82(935:935)</p>
	대화방식변화로 인한 싸움감소	<p>아내: 우리 부부끼리 계속 그것을 활용해서 대화하는 것을 노력하다 보니까 싸움 일도 그렇게 하니까 덜 되더라고요. 1:84(820:820)</p>
	남편의 기능화로 인한 아내의 역할부담감소	<p>아내: 남편이 제 기능을 해주니까 저도 사실 편해요. 과도한 기능을 안해도 되니까. 1:85(835:835)</p>
서로 (부부)의 의사표현 패턴에 대한 통찰 (2)	자신에 대한 통찰	<p>남편 : 일단은 같이 살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살아볼려고 하다보니까, 힘든점도 있지만, 그동안 내가 이것을 피해 왔구나 내가 그런 패턴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야겠죠.</p> <p>1:65(603:603)</p>
	배우자의 대화패턴에 대한 이해	<p>아내: 대화법을 배우면서도 화나니까 니멋대로 해라라는 패턴은 몰랐었거든요. 남편의 진짜 패턴을 제가 조금씩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1:86(835:835)</p>
솔직한 의사표현으로 전환 (7)	양적대화에서 질적대화로 전환	<p>남편: 서로가 감정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질적으로 전에는 양적으로 많았는데, 질적으로는... 짐사람도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놓더라고요. 1:66(603:603)</p>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p>아내: 아가씨한테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화를 안내니까 속 들어가고 함부로 못하더라고요. 1:78(673:673)</p> <p>아내: 내가 이것을 한 것은 당신이 엄마를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니까 당신 생각해서 배려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이 한국의 며느리 입장에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다했는데, 그것이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엄마랑 만나는 것을 가로막았다고 하니, 내가 먼저 나서서 찢린 기분이 들었다고 하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 그렇게 조리있게 말했어요. 1:78(824:824)</p>
	긍정적 대화로 전환	<p>남편: 대화가 많고. 대화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1:66(603:603)</p>
	직접적표현으로 전환	<p>아내: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에너지 소모도 안하고. 지금도 남편한테 계속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히스테리 안 부리고 쌓아두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금 한다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못마땅하고 기분이 나쁘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를 하죠. 내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신 배려하는 말이 아니고, 내 감정을 쏟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1:91(953:953)</p>
	부부간 감정표현의 확대	<p>아내 : 그 전에는 억울하게 당한 것이 많으면 참았어요. 처음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표현을 하기 시작했죠. 1:92(1061:1061)</p>

위에서 언급한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비록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간에 얽어있는 문제를 해소하기위하여 시어머니를 개입시켜 남편과 결려있던 미분화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지만, 부부간의 간접적 · 우회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부부간의 대화방식의 변화 및 자녀와의 대화방식에 있어 부정적인 갈등의 요인들이 감소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가족치료 상담에 나타난 변화의 과정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별상담과 가족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치료기간은 2000년 8월부터 2001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총 11회기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가족상담을 하는 가운데 내담자인 부부간의 의사소통방식과 각자의 원가족내에서의 내담자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간에 사용되었던 역기능적 의사소통방식이 역력히 발견되었고, 특히 원가족으로부터 남편은 어머니와, 아내는 친정아버지와 밀착관계로 인한 원가족내에서의 다른 가족과의 역기능적 삼각관계의 형성 및 부정적 미분화로 인한 여 어려서부터 사용해 왔던 솔직하지 못하고 우회적인 의사소통방식이 결혼 후에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똑같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부부간, 가족간에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가족치료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는 원가족의 영향으로 인하여 각자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솔직하지 못한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통찰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대화하는 방식이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부부간, 부모-자녀간에 관계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치료로 인하여 상담 받기 전의 의사소통방식과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변화된 의사소통방식이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었다. 특히 남편과 아내간의 의사소통방식이 솔직하고 일치하는 의사소통방식으로 전환이 있었다. 원가족의 문제가 걸려있었던 시머어니의 개입이 이루어지

지 않아 남편과 어머니사이의 미분화를 다루지는 못했으나 상담이 종결된 후 현재는 내담자인 부부간, 그리고 부모자녀간에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언급한 바와 같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아니며,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체계 중 많은 영향을 주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기 이전에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과 해결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예방적 접근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태영 · 김현경 (2004). 친밀한 가족관계의 회복: Murray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의 적용. 서울: 학지사.
- 이재연 외 (1990). 의사소통과 가족관계. 서울: 형설출판사
- Broderick, C. B., & Pulliam, H.(1979). Family process and child outcomes.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FreePress.
- Duncan, B. K., Solovey, A. D., & Rusk, G. S.(1992). Changing the rules: A client-directed approach to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riedman, E. H., (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Gurman, A. S., & Kniskern, D. P.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Gavin L.A. & Wamboldt F.S. (1992). A Reconsideration of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8(2), 179.
- Schlanger, K., & Anger-Diaz, B. (1999). The brief therapy approach of the Palo Alto Group. In D. M. Lawson., & F. F. Prevatt. Casebook in family therapy. New York: Brooks/Cole.
- Stinnett, N., Walters J. & Kaye J. E. (1984).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 Y. : Macmillan.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1974). Change: problems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 Weakland, J., Fisch, R., Watzlawick, P., & Bodin, A. M. (1974). Brief Therapy: Focused problem resolution. Family Process. (13). 141-168.